

시중은행 최초 ‘유로 그린본드’ 발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5억 유로(EUR)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그린본드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로는 약 6530억9500만원 상당이다. 지난해 원화 그린본드와 올해 상반기 외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에 이어 세 번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이다. 금리는 유로 5년물 미드스왑 금리에 0.70%를 가산한 고정 0.25%이다.

청약에는 AA등급 이상의 초우량 기관 발행에만 참여해온 중앙은행·기관(SSA)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유로 그린본드 공모 발행으로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G3 통화 조달에 모두 성공하게 됐다.

투자자는 분포는 프랑스 12%, 독일 10%, 네덜란드 10%, 영국 8%, 기타 유럽 25%, 아시아 35%로 지역별로 고루 분포됐다. 유형별로는 자산 운용사·보험사 60%, 은행 23%, 중앙은행·기관(SSA) 17% 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저변 확대와 조달통화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그린본드 공모 발행은 의미가 크다”며 “발행자금은 그린본드 발행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친환경 관련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우리·하나銀 “DLF 분조위 결정 수용”… 역대급 배상

판례상 배상 비율 최고치인 70% 예상

“깊이 사과… 조속한 배상 실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를 강행해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KEB하나은행은 17일 “은행의 DLF 판매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손님의 신뢰 회복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리은행도 “독일 금리 연계 DLF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상품 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노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판매한 경우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두 은행이 납작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당일 종합감사에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정부위원들과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은행 경영진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이 DLF 사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배상 비율에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분석이 나온다.

판례상 배상 비율 최고치인 70%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분쟁조정 관련은 적합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가 있었는지. 이는 곧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통상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 수준이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에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우리은행 신도시지점에서 DLS 투자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기룡 기자

선 문제의 은행들이 수익에 눈이 먼 나머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하거나 DLF를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의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하고,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했다는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다.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DLF 판매는 은행의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기

도 한다. 만약 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선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DLF 판매 전체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많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DLF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DLS 투자 피해자들은 강력 규탄하고,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 사태에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크다”며 “그럼에도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라며 권위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학자금대출 못갚는 ‘청년 신불자’ 1만명 육박 (신용불량자)

6~7% 주택금융공사 대출 연체율 14% 육박
부채채무 125억원,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이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은 점점 높아져 올해 상반기 기준 14%에 이른 다. 공공금융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을 신용불량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청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학자금대출은 1833억 원(15만411건)이다.

평균 회수율은 97%로 전체 대출금의 2.3% 정도가 여전히 남아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당 평균 122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것.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총 7조7000억 원의 학자금대출을 취급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 증권(SLBS)을 발행해 학자금대출 자금을 조달했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업무도 종료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위해 이자차액보전방

식에서 정부 보증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목적이 무색하게 7%에 가까운 이자율로 대출이 이뤄졌다.

7%대 금리로 대출된 학자금대출이 2.3%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1차 연장된 채권들의 경우 이자만 122억원이다. 원금인 116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대출잔액 연체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2014년 7.00%에서 2015년 들어 10.86%로 뛰었다. 연체율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1.83%, 지난 6월 말 13.54%를 기록했다. 채무자들이 오랜 기간 7%대의 이자를 갚아왔음에도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량한 채권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SLBS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적기에 지급해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일이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사진=조국 사태에 항의하는 대학생 촛불시위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이기룡 기자

부터 현재까지 약 30억 원의 채권을 소각한 바 있으며 28억원의 채무조정을 해준 적도 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청년 중 86.5%는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재호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채채무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으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예적금 금리 0%대 눈 앞… 은행권 줄인하

한은, 기준금리 연 1.50%에서 1.25%로 낮춰
은행들, 이르면 이번주 수신금리 인하 단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추면서 역대 최저점에 머물고 있는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또다시 떨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수신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예금상품 금리가 이미 연 1%대 초중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을 감안하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범위 내에서 수신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이달 중 예금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달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금금리 인하 시점은 다르지만 내리는 곳이 생기면 줄줄이 인하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줄지어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다음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매달 15일에 공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자들의 선행은 더욱 복잡해졌다.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안정적이지만 높게 형성되지만 최근 수개월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반등하고 있다. 고정금리 오프셋이 이어지고 변동금리가 더 내린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DRINK WITH THIS POSTER

TURN THIS POSTER INTO PAPER STRAWS BY FOLLOWING THESE STEPS

1. CUT OUT THE POSTER ALONG THE DOTTED LINE.

2. FOLD THE POSTER IN HALF.

3. CUT OUT THE STRAW ALONG THE DOTTED LINE.

4. UNFOLD THE POSTER AND THE STRAW IS READY TO USE.

GUARANÁ ANTARCTICA

Industry Craft Bronze Lion Campaign

Title: DRINK WITH THIS POSTER 이 포스터로 마셔요

Client: AMBEV

Agency: ALMAPBBDO, Sao Paulo

Product: GUARANÁ ANTARCTICA 과라나 안타티카(브라질 탄산음료)

Copy: Drink with this poster. Turn this poster into paper straws by following these steps 포스터 아래쪽 줄무늬 띠를 하나씩 떼어내면, 종이빨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